내부공익신고

휘리리릭!
세상을 바꾸는 소리

부패방지위원회
Korea Independent Commission Against Corruption

"용기있는 신고가 세상을 바꿉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 5가 581 서울시티타워 15층 부패방지위원회
부정부패신고센터 전화 (02)1398/팩스(02)2126-0098~99

목 차

어? 세상이 바뀌었네! ---------- 03
왜 내부공익신고인가? ---------- 08
우리시대의 작은영웅 '김용익' ---------- 10
깨끗함의 전주곡 '공익의 호루라기' ----- 13
보호·보상제도 ---------- 16
이미지뷰 ---------- 18
신고방법 ---------- 19

펴 낸 곳 | 부패방지위원회
발 행 인 | 이남주
발 행 일 | 2003.5
주 소 | 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 5가 581 서울시티타워 16층
내용문의 | 부패방지위원회 교육홍보과 02)2126-0172

제로미는 '부패제로(0)사회'를 상징하는 부패방지위원회의 캐릭터입니다.

그런데 그 용기 있는 행동의 지름길은 뭡니까?
음... 내부공익 신고죠!
내부공익 신고?
월드컴이란 회사의 감사역 시절이었죠!
월드컴

감사결과 38억 달러의 회계부정 비리를 알게 됐고 비리를 이사회에 경고했어요.
저는 투자자와 소비자를 우롱하고 경제질서를 망치는 회계비리를 좌시할 수가 없었습니다.
회계비리를 막아야 합니다!

아이고, 그게 미국이니까 가능한 일이죠.
우리나라는 조직에 해를 끼친다 싶으면 완전 매장 당해요. 의리에 살고 의리에 죽는다잖아요.
뻔뻔해!
잘났어!

미국 사회도 별반 다르지 않았었답니다. 그렇지만 바뀌어가고 있죠.
국민의 75%가 조직의 부정을 목격하면 신고하겠다고 하니까요. 우선 제가 영웅대접을 받는 것만 봐도 알 수 있죠. 한국도 변해가고 있다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덕분에 여행 즐거웠습니다.
제가 한 수 배운걸요. 안녕히 가십시오.

며칠 후 한용기의 직장
제1차 관광 프로젝트
이···· 이럴수가!!
특혜?

틀림없어, 이번 프로젝트 입찰선정에 비리가 있어! 그것도 엄청난 규모로···
으~
모든 비리는 정의로운 사람을 우롱하고 시장질서를 망치는 지름길이에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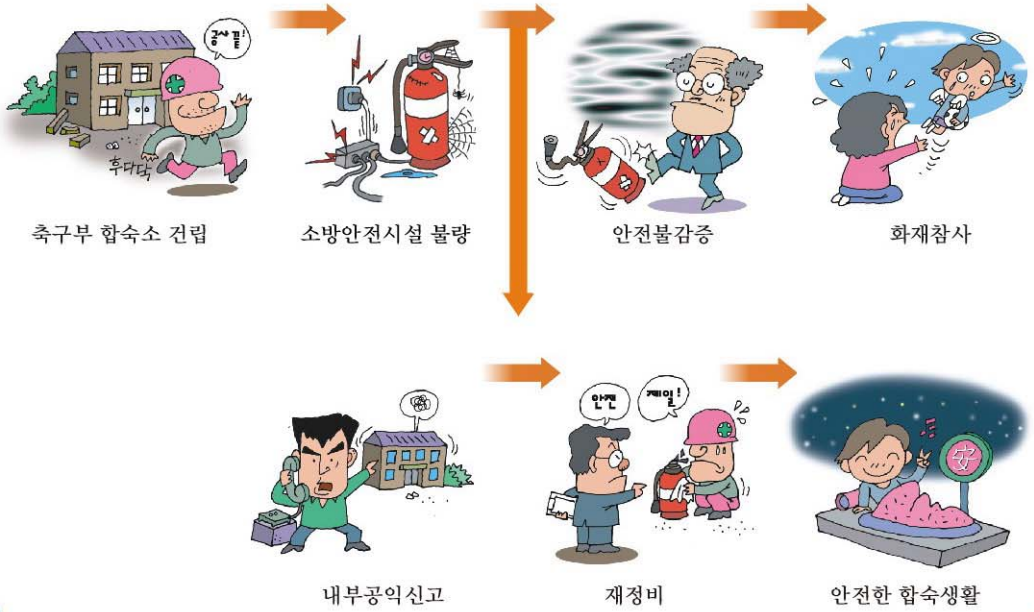
어떡하지? 이걸 신고했다가는 내 동료가 구속될지도 모르는데... 그렇다고 초대형 프로젝트 계획이 부실시공 하게 할 수도 없고...
당신만 입 다물었으면 우리남편이 구속되지 않았어!
당신은 그렇게 깨끗해?

아아..
괴롭다...
끼이익~
아저씨,
괜찮으세요?
구해줘서
고맙다.
근데 아저씨,
무슨 고민 있으세요?
고개 숙이고 걷다가
큰 사고 날 뻔 했잖아요.
내 고민...
그걸 어떻게
말을 하니...
말씀 안하셔도
저는 압니다.
관광프로젝트 업체 선정비리를
신고할까 말까
고민하고 계셨죠?
헉! 그걸
어떻게...?
제가 누굽니까! 부패 제로 사회를 상징하는
마스코트 제로미 아닙니까!
부패가 싹을 틔우고 있는
곳이라면 그 어디든
제가 나타납니다.
부정을 보고도 침묵
하면 부패 관행은
계속 커져서 돌이킬 수
없는 사태가 일어납니다.

IMF 경제위기도 다 부패 때문에
일어난 일입니다.
과거의 씨랜드 수련원 화재, 성수대교 붕괴
삼풍백화점 사건도 용기 있는 내부공익신고자가
있었다면 발생하지 않았을 참사였습니다.
삼풍
그거야 나도 알지. 그러나... 신고했다가는
동료들에게 왕따를 당할 것이고
직장까지 잃을지 몰라.
걱정마세요.
내부공익신고자의 비밀과 신분은
법에의해 철저히 보호해 줍니다.
과거와는 달라요.
정말인가?
그럼요.
그래, 나만
용기를 내면!
아저씨의 용기가
한국 경제를 구할 수
있어요!
그래, 결심했어!
이제 마음이 홀가분 하다~
부패방지위원회

왜 내부공익신고인가!

천안 축구부 합숙소 화재의 경우 (2003.3.26)



한번만이라도 양심의 호루라기를 불었더라면...

지난 3월 26일 충남 천안초등학교 축구부 합숙소의 화재로 초등학생 9명이 숨졌습니다. 합숙소는 1993년 지어진 무허가 건물로 지금까지 단 한차례의 소방점검도 받지 않는 등 부실하게 관리돼 왔다는 점이 조사결과 밝혀졌습니다. 누군가 단 한사람의 용기 있는 내부공익신고가 있었더라면 천안초등학교의 화재참사는 물론 씨랜드 수련원 참사와 성수대교, 삼풍백화점 붕괴사고는 없었을 것입니다.

내부공익신고(Whistleblowing)란?

"조직의 구성원이거나 구성원이었던 자가 사회 전체의 안전과 권익을 보호하고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조직의 불법 및 부당행위를 일반 사정기관이나 언론기관 또는 공익단체 등 조직 외부에 알리거나 문제를 제기하는 행위"입니다.

1. 내부공익신고는 부패를 예방하는데 가장 효율적인 수단입니다

내부사정을 잘 알고 있는 내부자에 의한 공익신고는 일반 신고에 비해 내용이 구체적이고 사실적이어서 부패예방과 처벌에 가장 효율적입니다.

2. 내부공익신고는 사회와 개인에게 사회적 · 경제적 이익을 가져다 줍니다

내부공익신고에 의한 정부나 기업 내의 비리 폭로는 국민의 관심을 불러일으켜 제도개선으로 연결되고 자원의 절약과 효율적 배분을 가져와 사회 전체 및 개인에까지 이익이 됩니다.

3. 내부공익신고는 민주적이고 투명한 가치관을 만드는데 기여합니다

내부공익신고로 인해 조직내 정책결정 및 집행에 민주화 및 투명화가 이루어지며 결국 공직 및 사회 전반에 민주적이고 투명한 가치관이 정착되고 확산됩니다.

부패방지법에 의거 우리나라도 법적으로 보호받는 내부공익신고제도의 새 장을 열었습니다

2001년 7월 제정된 부패방지법에 우리 역사상 최초로 내부공익신고제도가 도입되고 부패방지위원회가 신고자의 신변과 신분보호를 맡으면서 우리나라도 내부공익신고 제도가 정착화 되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시대의
작은영웅
'김용익'

1998년 참여연대의 소식지 '개혁통신'에 실린 글이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켰다.
改革

대통령님, 의보약가가 실거래 값의 9배에 달하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의사들은 업체의 뒷돈을 받고 모른체하고 있습니다

어떤 약이 새로 병원에 들어가려면 '랜딩비' 그 후에는 '리베이트'라고 불리는 상납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나....신입....

대학병원들이 1차 항생제 대신 비싼 3차 항생제부터 쓰는 일은 공공연한 비밀입니다.
나...3차
난...1차

결국 모든 비용부담은 국민의 호주머니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애써 가르친 제자들이 도둑질하는 의사가 되는 것을 더 이상 볼 수는 없다

이 글이 청와대 홈페이지에 띄워지고
청와대

신문에 보도 되면서 의료계에는 한바탕 소동이 일어났다.
의약품 비리

자기만 깨끗한가?
고자질이 교수가 할 처신이야?
자기는 기초의학이라 어차피 돈 못번다 이거지

당신이 의사야!!!

교수님, 의사협회에서 우리 대학에 공식 유감표명을 했답니다.

의사들의 전화도 쇄도하고 있습니다.
따르릉
따르릉

어차피 누군가는 욕먹고서야 의약품 비리를 없앨 수 있어. 각오했던 바야.

이 기회를 놓치면 죽도 밥도 안돼. 밀어 붙여야 해.

자네, 자료를 빨리 모으게. 책자를 만들어서 의대 교수들에게 보내고 통신망에도 올리자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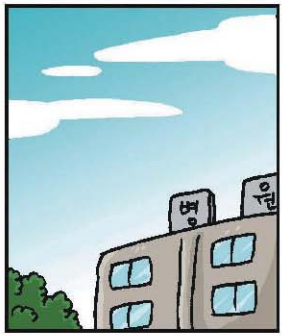
대안 제시가 명확하군.

그래, 이거야. 우리 자신부터 바꾸어야 해.

나도 돕겠네.

선배님, 드디어 우리도 양심의 짐을 덜게 됐습니다.

됐다! 20여명이 양심선언문 작성에 동참했어.



드디어 의보 약가가 30.7% 인하됐습니다!

의료개혁, 이제 시작이야!

김 용 익 교 수 프 로 필

- 서울대 의대 의료관리학 교수
- 1998년 '개혁통신'에 대통령께 보내는 서한 형식으로 의약품비리 폭로
- '의약분업 실행을 위한 시민대책위원회' 자문위원으로 의약분업안 밑그림 기초

깨끗함의 전주곡 '공익의 호루라기'

1992년 8월 민주당사

지난 3월의 14대 총선은 광범위한 관권선거였습니다.

당시 충남 연기군수로 재직하던 한준수씨의 폭로였다.

증거물 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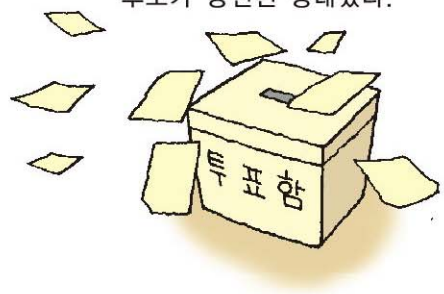
도와 군, 여당 후보가 총 8천5백만원을 조달하고

총선 직전 주민들에게 살포했습니다.

나 장관인데... 여당 후보를 좀 밀어 줘야 겠소!

장관은 공천 탈락자를 관리하고 야권의 장외집회를 지역선관위와 협조, 공동 대응하라는 압력을 가했습니다!

당시 연기군에서는 야당인 국민당 후보가 당선된 상태였다.



한준수 프로필

- 청양 군수, 연기 군수 역임
- 1992년 8월 31일의 관권선거 양심선언 후 선거법 위반으로 구속, 수감
- 현 양심선언자회 회원으로 활동

신고자의 든든한 보디가드 보호·보상제도

1. 비밀을 철저히 보장합니다.

- 보장내용
  신고자의 동의 없는 신분공개 및 암시행위 금지
- 조치사항
  신고자의 비공개 요구시 위원회 심사과정 및 조사기관 이첩시에 인적사항 기재 생략
- 비밀공개여부확인
  위원회에서는 신고사건 처리와 관련하여 신고자의 동의 없이 신분이 공개된 경우, 경위를 확인하여 징계 및 필요한 조치 강구

2. 신분을 철저히 보장합니다.

- 보장내용
  신분상의 불이익처분에 대한 원상회복·전직 및 인사교류
- 보장절차
  신분상 불이익처분을 당한 자의 요구서 접수 –〉 위원회 조사·확인 –〉 심의·의결 –〉 통지(요구자 및 해당기관) –〉 신분보장 조치
- 조치사항
  원상회복, 전보·전직, 인사교류 등 요구(권고)

3. 신변을 철저히 보호합니다.

- 보호대상
  부패행위 신고자 ·협조자 및 그 친족 또는 동거인
- 보호내용
  신변의 위협으로부터 안전 및 신체상의 상해방지 등
- 보호절차
  요구서 접수 –〉 심의·의결(긴급시 선조치) –〉 관할경찰서장에 통지 –〉 신변 안전조치 이행

4. 내부공익신고자의 포상 및 보상

신고에 의하여 현저히 공공기관에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경우 또는 공익의 증진을 가져올 경우에는 포상을 받을 수 있으며, 신고로 인한 직접적인 공공기관의 수입증대 또는 비용절감이 있는 경우 그 가액의 2~1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최고 2억원까지 지급합니다.

- 보상금 지급기준

보상대상가액	지급기준
1억원 이하	10%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	1천만원+1억원 초과금액의 7%
5억원 초과 20억원 이하	3천8백만원+5억원 초과금액의 5%
20억원 초과 40억원 이하	1억1천3백만원+20억원 초과금액의 3%
40억원 초과	1억7천3백만원+40억원 초과금액의 2%

바람은 창을 흔들리게 할뿐
빗물은 먼지를 얼룩지게 할뿐
창밖의 사람들은 갈 길만 가고...
빛을 가져다 주는 건 바로 나의 손

내부공익신고 이렇게 합니다.

부패방지위원회 부정부패신고센터

- 상담전화 이용 : 국번없이 (02)-1398
- 팩스: 02-2126-0098
- 부패방지위원회 홈페이지 : www.kicac.go.kr 를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부패방지위원회가 궁금하다구요?

- 부패행위 신고의 접수처리와 신고자 보호·보상
- 공공기관 부패방지 시책수립과 제도개선 권고
- 부패방지 교육·홍보 및국제 협력
- 부패방지 시책 점검·평가 등 부패방지 종합기능을 총괄적이고 독립적으로 수행하는 대통령 소속기관입니다.